

# 한전공대 정부 재정지원 속도

### 산업자원부,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안정적 운영 토대 마련...법제처 심사 등 거쳐 3월 시행

2022년 3월 개교 예정인 한전공대를 위한 정부의 재정지원 근거 마련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4조원을 웃도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한국전력 등 공공기관이 출연한 학교법인 운영 대학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 작업에 나선 것이다. 보수 야당 등 일부의 흠집내기에도 한전공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토대 마련에 정부가 힘을 쏟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20일 전남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23일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하고 오는 3월 3일까지 의견 접수를 받는다. 산업부 개정안은 '전력산업기반기금 사용 범위 중 전문인력 양성 및 관리 지원범위를, 현행 전력산업 분야에서 전력산업 및 관련 융복합 분야로 확대하고, 공공기관이 출연한 학교법인이 설립·운영하는 대학도 포함시

킨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입법 예고 기간 의견 수렴을 거쳐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국무위원회 의결, 대통령 재가를 거쳐 올 3월 중 시행될 전망이다. 시행령 개정 작업이 완료되면 2018년 말 기준, 4조 1848억원 규모의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일정한 절차를 거쳐 향후 설립될 한전공대에도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한전 관계자는 "개정 시행령이 시행되면, 기금관리위원회 심의, 정부 예산 편성, 국회 심의 등 일정한 절차를 거쳐 한전공대에 지원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전은 '미래 에너지 연구를 선도하는 글로벌 산학연 대학'이라는 비전 아래, 2022년 설립부터 2031년까지 10년간 한전공대 설립과 운영에 1조6112억원 규모의 사업비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대학 소재 자치단체(전남도·나주시)와

정부, 한전 등 세 주체가 사업비를 부담하기로 예정된 가운데, 전남도와 한전은 정부차원의 재정 지원 방안의 하나로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전력산업기반기금 지원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정부가 국회 동의 절차가 필요없는 시행령 개정을 우선 추진하고 나선 것이다. 정부 차원의 핵심 재정지원 근거가 될 '한전공대 특별법'(가칭 에너지 공공기관의 인재양성 지원 특별법) 제정은 4·15 총선 이후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전은 나주시 빛가람동 120만㎡(대학부지 40만㎡, 연구소·클러스터 부지 80만㎡) 부지에 학부생 400명, 대학원생 600명 등 1000명을 정원으 하는 공대를 오는 2022년 개교 목표로 설립을 추진 중이다.

학교 설립을 위해 지난해 9월 교육부에 한전공대 학교법인 설립 허가를 신청했으나 2차례 보류(계속 심사) 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 오는 28일 교육부 대학설립 심사위원회는 한전공대 학교법인 설립 심사를 개최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3차 심사에서 학교법인 설립 허가가 날 것인지 주목된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 위기 지역경제 주력기업 매출 급감...타격 불가피

### 광주 자동차·냉장고, 전남 석유·철강 등...소상공인도 위축 광전연 분석...선제적 대응으로 지역경제 위축 최소화해야

코로나19로 인해 자동차, 석유제품 등 지역경제의 주력기업들이 매출이 급감하는 등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감염병이 확산했던 2003년(사스), 2009년(신종 플루), 2015년(메르스)에 광주전남 지역경제가 1~2%p 성장을 저하된 바 있으며, 선제적 대응으로 지역경제 위축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제시됐다.

광주전남연구원 오병기 기획경영실장은 최근 발간한 '광전 리더스 인포'의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에 따른 지역경제 영향과 대응 방향' 보고서에서 "코로나19 감염증의 확산 속도가 예상을 벗어날 가능성도 있고, 과거보다 대중국 교역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지역경제 위축이 예상보다 심각할 수 있다"며 신속한 대처를 주문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감염병이 확산했던 시

기에 광주는 자동차, 냉장고, 전남은 석유제품, 철강업 업종 위주로 크게 위축됐고, 실제로 코로나19로 인해 중소기업 수출도 예로를 겪을 가능성이 높아 주력산업에 대해 적극적 대응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광주의 경우 연평균 15.2% 증가했던 자동차 매출이 감염병 유행기에는 그 3분의 1 수준인 5.2%로, 전남은 11.4%의 석유제품 매출이 -23.4%로 각각 곤두박질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광주전남 지역 공통적으로 관광 관련 산업이자 소상공인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도소매 및 숙박·음식점업도 감염병 유행 시기에 크게 위축됐다.

오 실장은 "코로나19에 의한 지역경제 위축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투자 활성화 대책 주요 내용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신속히 전파하여 시설운영자

금, 특례보증 등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중국 수출의 비중이 광주는 7.6%, 전남은 27.5%에 달하기 때문에 중국 내 물류 마비에 따른 수출기업 지원 체계 구축도 중요하다"고 제시했다.

3월 초 개최되어야 할 행사나 축제가 속속 취소되거나 규모를 축소하고 있어 "지역 내 소상공인의 어려움도 커질 것으로 예상돼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오 실장은 "감염병 확산 방지를 최우선으로 하되, 지역경제 위축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긴급 지원, 수출 기업에 대한 예로 해결 등 지방위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특히 관광산업의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금융 및 세제 지원뿐만 아니라 지자체 공무원과 공공기관 종사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경기 하강을 저지하는 데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전남에도 늦은밤·휴일에 문어는 심야약국 생긴다

### 도의회, 조례안 상임위 통과...희망약국에 운영비 지원

전남도가 밤 10시 이후에도 문을 여는 공공 심야약국 개설을 추진한다.

20일 전남도에 따르면 오하근 도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4)이 대표 발의한 '전남도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안'이 이날 도의회 상임위 심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전남도가 지정한 약국으로, 밤 10시 이후 또는 공휴일에 약국 문을 열면 운영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담고 있다.

전남도는 21일 해당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달 중 희망 약국이 있는지 수요 조사가 나서는 등 공공 심야약국 개설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22개 시·군을 통해 심야약국 신청 접수를 받고 심사를 거쳐 전남도가 지정한 약국에는 시간당 3만원 수준의 운영비가 지원된다.

전남도 관계자는 "조례안 본회의 통과 후 시군별 신청을 받고 심사를 거치면, 늦어오를 하반기에는 전남에 첫 공공 심야약국이 개설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약국들 호응을

지켜봐야겠지만 현재로서는 희망 약국을 5~10곳 정도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전남에는 2019년 말 기준, 791개의 약국이 있다. 광주에는 공공 심야약국 2곳이 운영 중이나 전남에는 없다. 도내 대부분 약국이 심야·공휴일에 약국을 열지 않아 고령인구가 많고 인근에 의료기관이 적은 전남 특성상 지역민 불편이 많았다. 전남 일부 편의점이 진통제·파스·감기약 등 13종의 안전상비의약품들을 판매하고 있으나, 약사에 의한 설명, 일반의약품 판매 등 약국 서비스에는 미치지 못한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의료진들 '도닥도닥'...광주소방학교 격리해제 20일 오전 광주시 광산구 공무원교육원 내 소방학교 생활관에서 머물던 격리자들이 퇴소하자 이들을 돌보며 함께 격리되어 있던 의료진들이 만감이 교차한 듯 눈물을 닦고 있다. /최현배 기자 choi@kwangju.co.kr

# 고유정 1심 무기징역...의붓아들 살해혐의는 무죄

### 재판부 "계획살인에 죄책감 없어...의붓아들은 증거 불충분"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유정(37)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정봉기 부장판사)는 20일 오후 21회 법정에서 살인과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유정에 대해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전남편인 피해자를 면접고 검권을 빌미로 유인, 흉기침을 먹여 살해하고 시신을 손괴·은닉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어떤 연민이나 죄책감도 찾아볼 수 없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성폭행하려다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질렀다는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범행의 잔혹성, 사회에 미치는 파장, 유족의 슬픔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고씨의 전남편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이 제출한 대부분의 증거를

모두 인정했지만,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우선 "간접증거만으로 유죄를 입증할 수 있다 하더라도 간접 사실 사이에 모순이 없어야 하고 과학법칙에 부합해야 한다. 다만 의심사실이 병존할 경우 무죄 추정의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며 대법원 판례를 제시, 사형 선고의 남용을 경계했다. 이어 "피해자의 사망 원인이 비구폐쇄성 질식사로 추정됐으나, 피해자가 또래의 아이들에 비해 왜소하고 통상적 치료 범위 내에 처방받은 감기약의 부작용이 수면 유도 효과임을 고려해 봤을 때 아버지의 다리에 눌러 사망했을 가능성 등을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 日 크루즈선 탑승 80대 2명 입원치료 중 사망

### 사망자 3명으로 늘어...중증 감염자도 26명

일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숨진 환자가 3명으로 늘었다. 일본 요코하마(横浜)항에 정박 중인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에 탑승했던 코로나19 감염 환자 2명이 20일 사

망했다고 교도통신과 NHK 등 일본 언론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사망자는 일본인 남성(만 87세)과 일본인 여성(만 84세)이다.

이들은 애초에 지병이 있었고 바이러스

검사에서 코로나19 감염이 확인돼 이달 11·12일 다이아몬드 프린세스에서 각각 내려 입원 치료를 받다 이날 숨을 거두었다. 일본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19일 기준으로 다이아몬드 프린세스와 관련한 중증 환자는 40~80대 남녀 29명이라고 교도는 전했다. 이 가운데 28명은 코로나19 바이러스 검사에서 양성으로 판정됐고 1명은 음성이다. 20일 사망한 2명 외에 중증인 양성 환자가 26명이 더 있는 것이다. /연합뉴스

**2020 漢字·漢文指導師資格**  
※教育部 國家公認 研修生募集

구분	광주여자대학교(30기)	광주교육대학교(21기)
모집/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요일 오전반 2020. 3. 6(금) 09:10 (준급반)</li> <li>· 토요일 오전반 2020. 3. 7(토) 09:10 (고급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요일 오후반 2020. 3. 6(금) 14:10 (준급반)</li> <li>· 토요일 오후반 2020. 3. 7(토) 14:10 (고급반)</li> </ul>
모집기간	2020. 1. 23(목) ~ 3. 7(토)	
수업기간	2020. 3. 6(금) ~ 2020. 8. 8(토) (6개월 24주 96시간)	
수업시간	· 오전반 09:10 ~ 13:00 · 오후반 14:10 ~ 18:00	
수료 후 특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 2단계연수과정 이수시 총장 명의 수료증 수여</li> <li>· 국가공인 기관 한자교육진흥회 한문지도사 자격 취득 기회 부여</li> <li>· 각 한문학원 강사 추천 및 학원개설 가능</li> <li>· 각급 학교 (방과 후 교육) 강사 추천</li> <li>· 연수과정 중 국가공인 한자급수(3급 ~ 사법) 취득 기회 부여</li> </ul>	
수강료	₩ 360,000(예금주: 광주여대) · 광주은행: 148-107-307803	₩ 360,000(예금주: 광주교대) · 국민은행: 773901-01-476736
원서교부 및 접수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의: 062)950-3582-4</li> <li>· 지도교수(선병공): 010-3614-4160</li> </ul> <p>광주여자대학교 평생교육원 KWANGJU WOMEN'S UNIVERSITY</p> <p>http://always.kwu.ac.kr</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의: 062)520-4243</li> <li>· 지도교수(선병공): 010-3614-4160</li> </ul> <p>광주교육대학교 평생교육원 KWANGJU EDUCATION UNIVERSITY</p> <p>http://www.gnue.ac.kr/</p>

**“공장부지 매매” (급 매)**

- 전남 나주시 문평면 옥당리 1397-13, 91-3
- 문평농공단지 6차선도로변
- 대지 14,916.9㎡, 건물 998㎡(H빔 구조)
- 태양광발전소 99kW 설치(건물 위)
- 공장, 창고, 사무실, 사위장, 화장실 시설 구비
- 건물 일부 임대 중 (보증금 2천만원/월 190만원, 약 700㎡)
- 매월 4백만원 이상 수입(임대료 및 태양광 수익) 태양광은 대출 없고 순수익 임

**※ 매매가 25.5억 ※**

**인 하 건 설(주)**  
010-3605-0214  
062)655-4840

**풍수·사주 수감생 수시모집 및 상담**

**기운을 바꾸는 풍수~!**  
주택, 사업장은 물론 산소까지, 있는 그대로의 상태에서 보다 좋은 터전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개 강 (6개월 과정)**

- 일 시: 2020. 3. 3(화) 오후 7시
- 장 소: 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 교육장 (무등로478-1 : 산수오거리 → 무등산방향입구 우측 2층)
- 수강료: 풍수·사주 15만원(매월)

**공개강좌 (무료)**

- 일 시: 2020. 2. 25(화) 오후 7시
- 장 소: 상동(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교육장)
- 대 상: 누구나 (선착순 00명)

**컨설팅(전문상담) 분야**

- 천기비법 대 공개
- 기감풍수 비법 교육
- 분묘, 이장, 납골당 및 수목장 수목파 중화
- 음택, 양택의 풍수 감정 및 비보
- 사업(장사) 부진의 풍수적 진단
- 사주 교육 및 감정(사주, 궁합, 택일 등)
- 작명(신상아, 개명, 상호 등)

**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  
010-3146-6370 / 010-2246-1508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담**

**▶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 파악 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 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NAVER 채권추심 회수왕**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